



5면

복지안전망 강화로 '시민 돌봄 책임도시' 박차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음 5월 29일) 제4012호

14면

임실군 1억원 고향사랑 기부, 도내 최고액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이원택 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 '전북 뭉 찾기' 도-시군-정치권 '결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모인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자리는 정부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맞춰, 선제적인 예산 확보 전략과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신규·중액 사업 중심의 기획예산처 2차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7년 국가예산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정부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중점 관리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반영을 위한 도-시군-정치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5대 메가 프로젝트 및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과 관련하여 새만금 신단이 보유한 부지 인프라와 재생에너지·용수 여건, 첨단 소재 기업 유치 및 인력 양성 기반 등 입지 우위를 앞세워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피지컬AI 중심 역할 확대를 추진하며, 국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도

민선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 국비 확보·현안 해결 전초전 기획처 심의 단계 대응·메가프로젝트 등 현안 해결 논의 14개 시군, 지역 현안 건의... 삼각공조 대응체계 가동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법률상 본점 소재지가 규정된 기관은 이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등 정치권과의 입법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안건들을 실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래 첨단산업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한국발전공사 통합법안'의 공동 발의 등 입법 지원은 건의했다. 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RE100 선도 신단으로 지정하고, 통합발전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책

도 점검했다.

국가철도망과 국도·국지도 확충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신규 편입된 전주권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여 타 대도시권과의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섬진강 수계의 지리적 중심인 남원에는 '섬진강유역환경정' 신설·유치를 추진하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맞선 논리 개발과 도·시의회 건의서 채택 등으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그룹 등의 대규모 투자로 신단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 점안시설(4선석) 및 배후부지(285만㎡)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어진 시·군별 건의에서는 14개 시장·군수가 총 50건의 사업을 발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상시 협력 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첨단산업 육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도와 시·군

정치권이 원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전북의 독자적인 경제 영토와 정당한 몫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임기가 개시된 바로 정책협의회를 갖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1차적으로 예산이라는 계량적 지표로 노력의 결과가 표출되는 만큼, 더 열의를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선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무주군수) 역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단순히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과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지역의 이해를 넘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어지고, 전북 공동 발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지난 10일 군산시 무녀도에 조성한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 개장식.

## 서해 최대 해양레저파크 군산 무녀도에 '문 열다'

'오션팔레트' 개장식  
전국 9개 사업 중  
군산서 먼저 개장  
고군산군도와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

관광단지다.

개장식 이후 황종우 장관과 내빈들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준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물놀이시설 확충, 계절별 프로그램 개발 등 오션팔레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무녀도에 조성한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김의겸 국회의원과 도·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오션팔레트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2018년 군산이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현재 전국 9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군산이 가장 먼저 준공과 개장을 마친 전국 최초 사례다.

총사업비 427억원을 들인 오션팔레트는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서핑장, 잠수풀, 레저레이크, 숲속 캠핑장, 아쿠아카페 등을 갖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복합

시는 이번엔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가족친화형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계절별 운영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시설인 만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요원 상시 배치, 수질 및 시설물 관리,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운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오션팔레트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해양관광의 성장동력이자 다시 찾고 싶은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며 "선유도해수욕장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등을 해양관광 콘텐츠가 함께 활성화되면, 군산은 즐기고 머물며 쉬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출범  
새로운 내일을 열다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